

파일명 구분	회의록	제 차	
		작성 자	김형범
		회의일자	2016.01.20
회의 장소 및 주제	■회의장소 :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관 5층 ■회의주제 1.전시내용 및 작업분장에 관련한 회의	참 석 자	
		서울시립대	교 수 김성홍
		한양대	교 수 안기현
		인천대	교 수 신은기
		단국대	교 수 김승범
		에이코랩	소 장 정이삭
		서울시립대	정다은
		서울시립대	김형범
		-	최민정
내 용	■전시내용 제작 관련 회의		
	1.지금 현재 선정 작품들에 대해서 자료 온 것들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음.(AGH,SEG)		
	2.작업은 아카이브를 위해 인디디자인으로 작업 진행.(AGH)		
	3.잉여공간을 콜라주를 이용해서 보여주는 것도 좋겠음.(AGH)		
	4.가능한 모든 소스를 모아서 한 두 개정도 샘플을 먼저 만든 후에 나머지 것을 작업진행 하는 것이 좋겠음.(AGH)		
	5.건축가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내용을 듣거나 자료를 받는 거이 더 빠를 수 있음.(AGH)		
	6.다음주 중순(수요일)까지 샘플, 다이어그램들을 완료 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는 것이 좋겠음.(AGH)		
	7.건축가들이 보내준 내용들에 중복 되는 것이 많음.(AGH)		
	8.페포니스 교수님의 의견으로 신당동 건물 다이어그램이 가장 이해하기 쉽다고 함.(KSH)		
	9.건축가 선정 작품의 내용을 사진 1개, 다이어그램 2개, 모형 2개로 설명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KSH)		
	10.우조씨 2월말까지 투입 가능.		
	11.안기현 교수님 쪽에서 작업 인원 2명 투입 예정.		
	12.작가들을 섭외 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주제에 대한 이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작가 작품의 이면이 나타나는 것임. 작가들의 전시가 되어서는 안됨.(KSH)		
	13.작가들이 한국관 내부 공간의 셋팅까지 관여해서는 안됨.(KSH)		
	14.정연두 작가 섭외시 한국관 네모 공간에 들어가는 것으로 함.(KSH)		
	15.생산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작가들은 주제에 맞는 소스를 제공하는 정도임.(KSH)		
	16.한국관 네모방에서는 도시의 풍경들을 경험해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KSH)		
	17.원형공간은 용적률 게임이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것이어야 함.(KSH)		
	18.원형공간에 아티스트의 사진전시가 되어서는 곤란함.(KSH)		
	19.원형공간은 용적률 게임을 설명하기 위한 상당히 쉽고 분석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함.(KSH)		
	20.전시내용들을 건축가들이 보는 눈으로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KSH)		
	21.원형공간에는 구체적인 컨텐츠가 필요.(KSH)		
	22.인포멀 섹터에서도 필요시 다이어그램과 모형을 만들 사람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KSH)		
	23.전시내용들의 구분이 필요. 모형, 다이어그램, 사진, 대지맥락, 도시분석, 작가들의 용적률 관련한 포착.(KSH)		
	24.용적률		
-도시한옥 70%			
-단독주택 100%			
-다가구,다세대 150%			
-아파트 250%			
25.내일까지 우리가 작가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정리해야 함.(KSH)			

	<p>26.원형공간의 레이아웃을 정이삭 소장님이 맡는 것으로 함.(KSH)</p> <p>27.한국관에 판넬설치 대신에 Hanging 고려. 그리고 재료는 반투명한 재질과 내용으로는 36개 건축물의 도시맥들이 연결되는 것을 보여 주었으면 함.(KSH)</p> <p>28.강남의 두 개 블록의 전시내용이 들어갔으면 함.(SEG)</p>
--	---